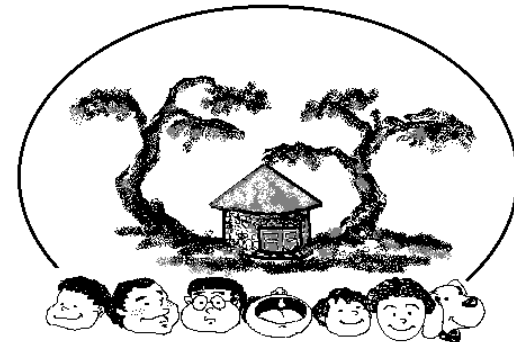


'2003 간디청소년학교 중국체험 학습

중국 거기 딱 써!



- 언제: 2003년 8월 24일 ~ 9월 5일 (2주간)
- 함께하는 사람: 교사 이임주, 손진근, 김미리
임 환, 김성기, 김도솔, 김성근, 민한별, 김재화,
이 안, 장인혜, 한수민, 김도현, 노영규, 박하은,
박기범, 신현우, 이수연, 김수민, 김진우, 김소은 (총21명)

백두산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우리들의 백두산으로
 신선한 겨레의 숨소리 살아 숨쉬는 백두산으로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만주별판 말을 달리던
 전사들의 투쟁의 고향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서해에서 동해에서 남도의 끝 제주도에서
 그 어디서 떠나도 한 품에 넉넉히 안아 줄 백두산
 온 힘으로 벽을 허물고 모두 손 맞잡고 오르는
 백두산이여 꺾이지 않을 통일외 깃발이여



물흐르듯 꽃피는 자리
 기변매일 기별곳

『 차례 』

차례	-----	1
함께하는 이들의 기억해야 할 사항	-----	2
중국에서 한마디씩!	-----	3
여행시 사전 준비 사항	-----	5
여행시 유의사항	-----	6
이것만은 알아두자	-----	7
중국에서 우리는 뭘 하나?	-----	9
중국 전체 지도	-----	10
중국이란 곳은?	-----	11
연변 조선족 자치주	-----	13
용정	-----	16
일송정	-----	17
도문, 남평	-----	18
발해를 꿈꾸며	-----	19
백두산	-----	20
북경	-----	22
운동주	-----	28
봉오동 전적지	-----	29
간단한 중국회화	-----	30
알아두면 좋지요	-----	31
메모란	-----	32

◎ 중국 두레마을 연락처

0433-259-1259(두레농장) 이성환 담당자

0433-291-5008(연변사무실)

<함께하는 이들의 기억해야 할 사항>

번호	이름	영문이름	여권발급일	여권번호
1	민한별	MIN HAN BYEUL	05/FEB/02	JR1975517
2	김수민	KIM SU MIN	08/JUL/00	CB0192648
3	박기범	PARK KI BUM	14/JUL/99	BS1052603
4	김진우	KIM JIN WOO	20/AUG/02	GK1018247
5	이 안	LEE ANN	09/AUG/03	SC1494113
6	김도현	KIM DO HYUN	04/JUL/00	BG0593241
7	임 환	LEEM HWAN	01/AUG/03	DG0943263
8	이수연	LEE SU YEON	31/JUL/03	GN0848960
9	김성근	KIM SEONG KEUN	17/NOV/00	DS1255437
10	김성기	KIM SUNG KI	05/AUG/03	GG0013565
11	신재승	SHIN JAE SEONG	02/AUG/03	GB0489823
12	장인혜	JANG IN HYE	30/JUL/03	GN0848736
13	박하은	PARK HA EUN	06/AUG/03	JN0430885
14	노영규	ROH YOUNG GYU	24/JUN/02	YP1201811
15	김도솔	KIM DO SOL	29/DEC/01	YP1075185
16	김재화	KIM JE HWA	31/JUL/03	NW0948875
17	김소은	KIM SO EUN	19/AUG/98	JR0879017
18	한수민	HAN SOO MIN	21/SEP/99	GK0453303
교사	손진근	SON JIN KUN	29/DEC/99	GN0544333
	김미리	KIM MI RI	29/JUL/03	CB0336481
	이임주	LEE IM JU	31/JUL/00	DG0602841

내가 뭘 보고 느꼈지?

내가 뭘 보고 느꼈지?

중국에서 한마디씩!

(중국 곳곳을 둘러보고 소감을 한마디씩 받아봅시다.)

- 한 곳에서 한 명 이상 받기 -

■ 민 한 별 -

■ 김 수 민 -

■ 박 기 범 -

■ 김 진 우 -

■ 이 안 -

■ 김 도 현 -

■ 임 환 -

■ 이 수 연 -

■ 김 성 근 -

■ 김성기 -

■ 신현우 -

■ 장인혜 -

■ 박하은 -

■ 노영규 -

■ 김도솔 -

■ 김재화 -

■ 김소은 -

■ 한수민 -

■ 이임주 -

■ 김미리/손진근

내가 뭘 보고 느꼈지?

내가 뭘 보고 느꼈지?

여행시 사전 준비 사항

1. **여권** : 해외여행을 할 때 가장 소중히 보관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이 없으면 호텔 투숙과 비행기 여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분실 할 경우를 대비해 여권 번호, 발행일자 등은 적어도 별도로 보관하거나 사진 있는 쪽을 복사해서 따로 보관해 둔다. 한국인의 여권은 중국에서 고가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노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

2. **여행용 가방** (영문 이름과 주소를 표기한 것)

여행할 때의 짐은 최소한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에 드는 가방보다 배낭을 저서 두 손을 언제나 사용 수 있도록 한다.(큰가방, 작은배낭 준비)

3. **세면도구** : 여행용 세면도구, 치약, 칫솔, 세수비누, 빨래비누, 수건

대도시 호텔에서는 훌륭한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으나 지방 도시의 호텔 등은 세면 도구의 질이 많이 떨어지므로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4. **카메라, 필름, 건전지**

중국에서 판매하는 필름과 건전지는 대부분이 불량품으로, 오히려 카메라가 고장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한국에서 구입해 가는 것이 좋다. 사진촬영은 일부 제한된 장소 외에는 자유롭다, 촬영이 금지되는 곳에서 촬영하다가 벌금을 물어야 하므로 조심!

5. **기후와 옷** :

① 북경 - 우리나라 서울의 기온과 비슷해 서울 날씨에 맞춰 준비하면 되는데, 여름은 좀 더 덥고, 겨울은 좀 더 춥다.

③ 백두산 - 간단한 가을 잠바를 준비하면 된다. 백두산은 기후 변동이 심하므로 방풍에 보온용 의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고, 우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대륙성기후이기 때문에 지역별, 밤낮의 기온 차가 심하다. 복장은 활동적이며 세탁이 잘 되고 말리기 쉬운 옷을 준비, 모자는 필수!

7. **신발** : 중국은 관광지가 넓고, 돌계단에 많기 때문에 신발은 굽이 없고 편안 것으로 준비하면 된다. (운동화, 여름샌들)

7. **비상약품** : 평소에 복용하는 약과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소독약, 바르는 파스와 1회용 밴드. 렌즈 사용자는 식염수와 렌즈 케이스도 잊지 말고 챙긴다

8. **환전** : 중국 화폐(인민폐)로 환전하시는 것이 좋다. 사용하시고 남은 인민폐는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환전하면 된다.(인민폐100元 ≈ ₩17,000정도 US\$1=인민폐8.2元)

절대 관광지, 공원 등에서 암 장사들을 통해 환전을 하면 안 된다. 100원짜리 중간에 10원짜리도 섞고 심지어는 가짜 돈도 있었다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난다.

9. 기타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되는 물건 :

- * 지도, 가이드가 있어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 * 다용도 칼, 여행지에서 과일 등을 사 먹을 때와 여러 상황에 사용!
- * 인스턴트 커피, 차, 중국요리에 질렸을 때 마시는 차는 기분을 좋게 한다.
- * 목에 거는 볼펜, 자료집에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 * 손전등, 재봉용구, 비닐봉투나 지퍼팩-젖은 옷이나 짐 정리에 필요.

여행시 유의 사항

중국 여행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우선 호기심과 기력과 체력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여행 시에는 최소한의 소지품.여권.돈.속옷, 약품 등이다. 하나하나 챙기면 짐이 늘기 마련..부피가 큰짐은 행동 경을 좁히게 된다고 하니 무거운 짐은 들고 다니기에 버겁다고 한다. 요컨대 짐은 되도록 **적게, 작게, 가볍게** 챙기는 것이 기본!!

1. 단체 여행이므로 공동생활의 질서와 시간을 지켜 주세요.
2. 가급적 단체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부득이한 경우 이탈 시에는 반드시 담당선생님께 얘기해 주세요.
3. 여행자가 많은 곳은 도난사고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여권 및 개인 소지품은 각자가 철저히 관리하세요.
4. 화장실 : 관광지나 공공장소에 위치한 대부분의 화장실은 남/여 구분은 있으나, 각각 안에는 문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청소상태가 불량하며, 유료이므로 잔돈과 휴지를 미리 준비하세요.
5. 쇼핑 : 이미 구입하신 물건은 환불과 교환이 어려우므로 구입하시기 전에 질과 가격을 잘 살펴보신 후에 구입하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보석류 주의 요망)
6. 식당에서 이가 빠졌거나 금이 간 컵/그릇/수저 등은 그 식당의 오랜 전통과 귀한 손님을 대접한다는 뜻이 있으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7. 중국에서는 물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물에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미네랄 워터를 사셔서 드셔야 합니다. 호텔 미니 바에 비치되어 있는 물은 대단히 비싸므로, 가급적이면 시중에서 구입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8.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때 국제전화비가 비싸므로, 콜렉트 콜(수신자 부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 물티슈는 필수품: 알코올이 스며든 물티슈는 식당 젓가락을 닦거나 손을 닦거나 변기를 닦는 등 온갖 곳에서 요긴하게 쓰인다고 한다.

내가 뭘 보고 느꼈지?

내가 뭘 보고 느꼈지?



이것만은 알아두자!

1. 중국의 시차

넓은 대륙인데도 전국이 통일된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한시간 늦은 시차이다.

2. 통화 및 환전

화폐의 단위는 원(元), 각(角), 분(分) 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원(元)은 10각(角), 1각은 10분(分)이다. 입국시 쓰고 남은 중국 화폐를 다시 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환전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3. 교통

중국의 도로는 하루 종일 자전거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절정을 이룬다. 그러나 자전거 모두 라이트가 없으므로 어두운 길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택시요금은 일제 세단이 가장 비싸며 그 다음이 중국제 세단, 우리나라의 다마스와의 비슷한 일명 뺑차라 불리는 중국제 봉고차가 가장 싸다고 한다.

시내버스는 아주 편리하게 노선별로 운행하며, 버스 노선도는 서점에서 판매한다. 외국 인처럼 보이면 요금을 톡없이 비싸게 요구한다.

4. 물건값 흥정

가격흥정은 백화점과 대형 슈퍼마켓 그리고 友好(우의)상점을 제외한 일반 상점에서는 처음에 30%-50%선부터 시작할 것이며 그리고 난 후에 서서히 올려 줄 것이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계산기를 이용하니 별 문제가 없다.

5.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화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전화는 중국 교환원을 통하면 엄청난 요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전화를 하려면 먼저 호텔 방에서는 외선을 누르고 또 공중전화는 수화기를 들면 신호음이 나온다. 이때 108-821(한국통신), 108-828(데이콤)또는 108-827(온세통신)중 하나를 누르면 바로 한국어로 말을 할 수 가있다. 그 후에는 안내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반값에 한국으로 전화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도시(小 도시)에서는 이런 방법을 근본적으로 막은 곳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찌는 수 없이 서울의 경우0082-2-국번-전화번호를 누르고 지방은 0082 다음에 0을 뺀 지역번호를 누르고 계속하여 원하는 전화를 누르면 된다.(경기도는 0082-31-국번-전화번호) 그

러나 한국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때는 001이면 001을 다 눌러야 한다.

6. 간단한 인사법

일반적으로 악수를 '니하오마'라 한다. 고맙다는 인사는 '시에시에' 하면서 합장하고 가볍게 머리 숙이면 된다. 헤이질 때는 '짜이찌엔' 이라고 한다.

7. 입국신고 및 세관 신고

공항에서 입국.세관신고서.건강신고서를 받는다. (이름,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비자번호 등을 영문 또는 한문으로 기재한다)

세관신고서에는 소지한 외화.시계.카메라.비디오.녹음기.귀금속 등의 품명과 수량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세관신고서의 이면지는 출국시까지 보관했다가 출국수속 때 제출하여 신고된 물품을 갖고 나가는지 확인 대조를 받아야 한다.

MEMO



내가 뭘 보고 느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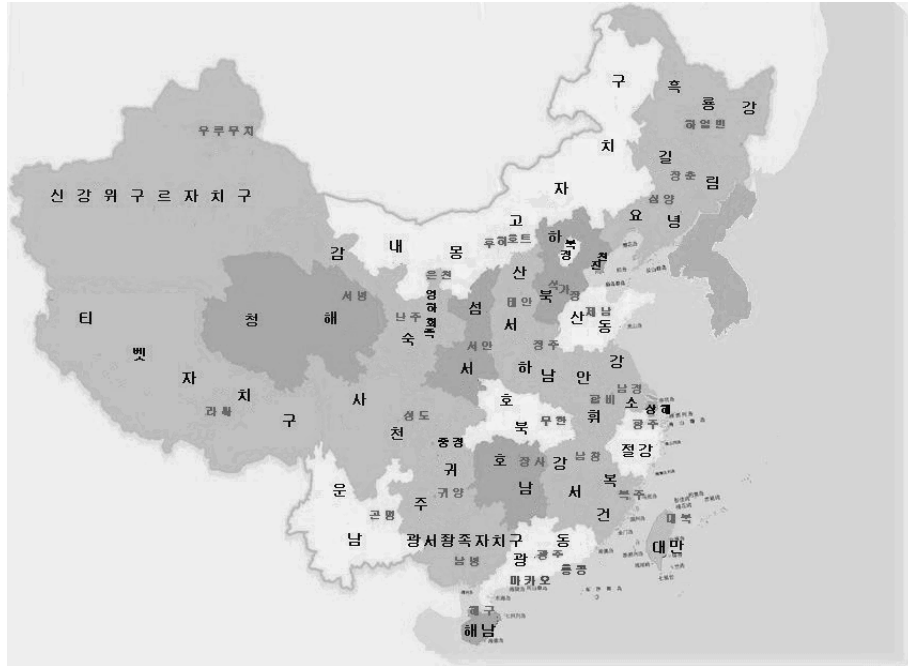
내가 뭘 보고 느꼈지?

중국에서 우리는 뭘 하나?

일정/시간	오전	오후	저녁
8/24/일	서울 출발/ 09:50분발	연변도착 / 짐풀기	전체 일정 프리핑 및 연변역사와 조선족 상황에 대한 강연/간담회
8/25/월	노작	노작	중국회화 및 저녁모임
8/26/화	노작	노작	
8/27/수	지역문화 답사 이동/용정, 윤동주 생가, 도문교두, 봉오동 전적지 등		
8/28/목			
8/29/금	연변화룽직업고 방문		
8/30/토	백두산 등반 및 지역주변 답사		
8/31/일	백두산 등반		두레마을 도착
9/1/월	연길시내 답사		연변 마지막날 밤 마무리 및 저녁모임
9/2/화	북경이동→	10:33 열차	
9/3/수	북경답사 I (자금성, 천안문 등)		
9/4/목	북경답사 II (만리장성, 이화원 등)		
9/5/금	북경 출발	인천 도착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특히 연변 일정은 많이 조정될 것이라 생각함.

중국지도



우리가 갈 곳은 어디지?

중국은 장구한 역사와 방대한 국토를 지닌 나라인 만큼 풍부한 문화 유적과 빼어난 산수를 자랑으로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만리장성, 자금성, 진시황 병마용 등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상해,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등 한국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유적과 관광지들이 많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표의문자(뜻글자)를 쓰고 있는 나라이며, 세계 최대의 인구를 지닌 나라이다.

중국은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황하문명을 꽃피운 나라로서 강인하면서도 근면한 국민성과 더불어 예절과 학문을 숭상하여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였고, 수천 년간의 변혁과 혼란을 거쳐 오면서 통일과 지속적인 문화 형태를 굳건히 유지하여 왔다.



내가 뭘 보고 느꼈지?



내가 뭘 보고 느꼈지?

중국이란 곳은?

1. **위치** 아시아의 동부, 태평양 서안에 위치
2. **면적** 약 960만 km²(러시아, 캐나다 다음으로 큰 나라), 우리나라의 약 43배정도
3. **수도** 베이징
4. **나라꽃** 매화나무
5. **중국인** 중국인의 성격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한 말은 "만만디(慢慢地)"이다. 이 말 그대로 중국인의 성격은 느긋하다 못해 느린 편이어서 특히 중국인과 사업상 만날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만만디로 인해 곤혹을 치르는 일이 허다하다. 또한 중국인은 쉽게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고 깊이 친해졌다는 생각이 들 때서야 비로써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6. **인구** 약 13억(세계인구의 4분의 1)정도이며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1.3%로 한해에 약 1,500만명 정도가 늘어나는 셈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막기 위해 한족(漢族)에 한해 1가구 1자녀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이런 정책의 역효과로 농촌지역에서는 호적에 오르지 못한 아이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중국 인구가 15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밀도의 순위는 상해, 천진, 북경 순이다.
7. **민족** 인구의 대부분은 한족(漢族)이며, 그 외에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이들 소수민족도 전체 인구의 6%정도에 불과하지 만 이들이 분포되어있는 지역도 대부분 변경 지역이며 면적으로는 전체의 50~60%를 차지하고 있다. 소수민족 가운데 인구 100만이 넘는 민족은 장족, 회족, 위그로족, 조선족 등 15개 민족이다. 그 중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조선족은 약 200만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살고 있다.
8. **정치 및 행정** 헌법상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따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정치권력은 당(黨)과 정(政)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당(黨)의 역할은 주로 정치 이데올로기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당(黨), 특히 중앙정치 상임위원회가 결정하며, 국가조직은 이러한 의사 결정의 수행을 위한 입법과 행정기능을 맡

고 있다.

9.언어 1949년 중국공산당 정부수립 후 1) 현대북경어의 발음을 표준으로 삼고, 2) 방어를 그 기초방언으로 하며, 3) 전형적인 현대의 구어로 쓰여진 작품을 그 문법적 규범으로 한다는 세 가지 원칙아래 "보통어"라는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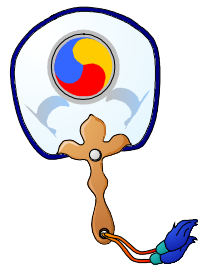
10.종교 오늘날 중국에서 종교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중국공산당 정부는 미신이자 인민의 아편이며, 지배계층의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의 신념과 일치하는 것이다. 중국의 종교는 제도화, 조직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일반대중의 일상 생활 속에 융해되어 있다.

11.기후 겨울 한랭건조, 여름 고온다습, 대륙성 기후 6~7월 사이에 장마

국토가 넓고 변화가 풍부하므로 기후 역시 한 나라 안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여름기온이 35°C를 넘는 장강연변이 있는가 하면, 겨울 기온이 -30°C까지 내려가는 동북지방도 있다. 실크로드 지방에서는 밤낮의 기온 차가 20~30°C까지 나기도 한다.

중국의 많은 지역은 온대이며, 남방의 일부지역은 열대. 아열대에 속한다. 다만 북부 지역은 한대 기후이다. 북방은 여름이 따뜻하고 짧으며, 겨울이 춥고 길다. 실제로 겨울에 동북의 하얼빈은 영하 30°C를 웃돈다. 전반적으로 바다에서 떨어진 대륙성 기후라 우리와 비슷한 위도의 지역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운 특성이 있다.

12.시차와 전압 중국과 한국의 시차는 1시간 차이가 난다. 즉, 중국이 한국보다 1시간 늦기 때문에 한국이 오전 11시면 중국은 오전 10시가 된다. 그리고 중국은 일반적으로 220V이지만, 플러그의 모양이 틀려서 우리나라의 전기제품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행 시 건전지를 이용하는 제품을 휴대하거나 호텔 카운터에서 어댑터를 빌려 사용하여야 한다.



내가 뭘 보고 느꼈지?



내가 뭘 보고 느꼈지?

연변

백두산으로 가는 중요 길목, 연길(延吉 : 이엔지)

◆ 중국 속의 작은 한국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

길림성 동부에 위치하여 러시아,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면적이 4만 3547km², 인구가 219만 5000명 정도로 11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40%가 조선족이다. 조선 말기부터 한국인이 이주하여 이곳을 개척하였고 이전에는 북간도라고 불렀다. 이후 1952년 9월 3일에 자치구가 설립되어 1955년에는 자치주로 승격되었다.

연길(延吉).도문(圖們).둔화(敦化).화룡(和龍).용정(龍井).훈춘(琿春)의 6개시와 왕칭(汪淸).안도(安圖) 2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하천으로는 도문강.송화강(松花江).목단강(牡丹江).소분강[綏芬江] 등이 있고, 도문강 유역에는 '동북아 금삼각주(東北亞金三角州)'라고 불리는 국제개발지, 훈춘경제개발지가 있다.

조선 말기 우리 민족에 이주하면서부터 연변은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 하며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독립운동가들이 활약했으며 그 때문에 청산리항일전승지(靑山里抗日戰勝地).봉오동(鳳梧洞)항일전승지.일송정(一松亭) 등 유적지가 많다.

◆ 한국의 숨결이 살아 있는 도시 연길(延吉 : 이엔지)

연길은 2,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지만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여년 전부터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도(州都)이며 중국 조선족 문화의 중심지로 백두산과 가까워 매년 많은 한국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연변에서는 사람들의 옷차림, 집, 길거리를 둘러봐도 전혀 낯설지 않은, 우리 나라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는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자치주 스스로 그 민족 나름대로의 지역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는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우대 정책에 따라 연변자치주 내의 정부기관이나 신문 광고 등에 조선족 자체의 문자를 우선적으로 쓰고 있고, 그 때문에 연변의 거의 모든 옥외광고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글이 공용어로 되어 있다.

연길은 중온대 반습윤 기후에 속해, 여름에는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리며 겨울이 길고 춥고 뚜렷한 대륙성 계절풍 기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5.7℃, 최저 -32.7℃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연길의 면적은 390km², 인구는 약 25만 8000명(1993)에 달하며 주변 농업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집산지이다. 이곳은 청(淸)나라 말기에 간

무국(墾務局)이 설치된 뒤 발달하였기 때문에 국자가(局子街)라고도 불렀다.

1902년 연지청[延吉廳]이 설치되고 1909년 부(府)가 되었으며, 1913년 중화민국 수립 후 현(縣)이 되었다. 1909년 간도협약(間島協約:젠다오협약) 이후에 교역주로서 개방되자 많은 한국인 이민이 이주하여 시의 주변지역을 개척하였다. 부근에 석탄, 금 등의 광산이 있고 광공업이 발달해 있다. 한국어방송국과 신문사가 있으며, 의과대학, 연변대학 등이 있다.

중국동북지방의 길림성 동부에 있는 연변은 2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자 연변조선족자치구의 주도로서 인구는 약 30만이며 이중 조선족이 59.6%, 한족이 38.8% 중심이 되어 살고 있다. 그 밖에도 한족, 만주족 등을 비롯하여 19개의 민족이 섞여 있다.

시 전체의 면적은 747.4km²이지만 시내만 따진다면 18.6km²에 지나지 않는다. 연변은 인구비례에 의한 소비가 제일 높은 것으로 소비도시이자 문화도시이다. 또한 4개의 예술단체와 1개의 자체방송국이 있는데 연변방송국은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소수민족자치지방방송국이라 조선족의 자부심은 대단히 크다. 연변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여년 전부터이다.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해 우리 귀에는 매우 익숙하게 들리지만 1985년에야 외국인이 사전 허가 없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긴급 개방도시로 된 곳이다.

연길역에 도착하면 우리말로「연길에 오시니 반가워요」라고 역건물 위에 크게 쓰여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주도인 이곳 사람들은 우리말로 말하고 여자들은 한복을 입고 다닌다. 이곳에 사는 중국인들은 우리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시내 중심에 있는 인민 공원에 가면 한국 유행가가 흘러나오기도 하는데, 이따금씩 눈에 띄는 경찰들이 떠들어대는 중국말만 없다면 한국의 어느 지방도시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이다.

조선족이 그 주류를 이루는 연길시는 명실공히 연변자치주의 문화 교육 경제 중심지로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연변대학)에 이르기까지 한국어로 강의한다. 연변의 인민공원에는 교포들이 유람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가는 곳마다 유행가가 흐르고 노인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연길사시장(延吉四市場)

북간도의 후예들이 우리말을 크게 외치며 장사하는 곳으로 60, 70년대 우리나라의 남대문시장을 연상케 한다. 중국에 와서 말이 통하지 않던 것이 이곳에 오면 시원하

알아두면 좋지요~

	<p>100元 (yi bai kuai)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5,000원 선이다. 꽤 큰돈이므로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할 수 있다.</p>
	<p>50元 (wu shi kuai)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5,000원인 셈이다.</p>
	<p>10元 (shi kuai) 10원이라고 우습게 보면 큰코 다친다. 적어도 두세끼는 해결할 수 있다.</p>
	<p>1元 (yi kuai) 우리나라의 100원으로 생각하면 된다. 동전도 있다</p>
	<p>5角 (wu mao) 5角이 두개가 있어야 1元이 되는 셈이다. 역시 동전도 있다.</p>
	<p>2角 (liang mao) 이 돈으로는 지전거바퀴에 바람도 넣을 수 있다. 화폐에 조선족이 인쇄되었다.</p>

간단한 중국회화

xie xie 감사합니다..

ni hao 안녕하세요

dui bu qi 미안합니다

웨이 부 치

qing gei wo gen na(zhe) ge yi yang de cai.

칭 께이 워 끈 나(짜) 거 이 양 더 차이 /저것(이것)과 똑같은 음식을 주세요

(yi gong) duo shao qian

이 끄 튀 사오 첸 /(모두) 얼마입니까

tai gui 너무 비싸요

na(zhe) ge hao qing gei wo kan kan hao ma?

나(짜) 거 하오 칭 께이 워 칸 칸 하오 마? /저(이)것이 좋군요 보여주시겠어요?

dui bu qi wo zhi shi kan kan.

웨이 부 치 워 썬 스 칸 칸 / 미안합니다 구경만 할게요..

wo yao mai zhe ge

워 야오 마이 썬 거 / 이것을 사겠습니다

pian yi yidier hao ma?

피엔 이 이더얼 하오 마? / 깎아 주시겠습니까?

돈의 단위 표기 원(元)으로 되어있으나 읽을 때는 “콰이” 라고 한다.

아마도 물건 위에는 50元(웬) 으로 되어 있으나 얼마냐고 했을 때는 읽을 때는 50콰이 라고 한다...

게 해결된다. 동포끼리라는 것을 내세워 물건을 비교적 싼값으로 살 수 있다. 그러나 연길 사람들은 중국의 다른 곳에 사는 교포들로부터 연변 각쟁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딱딱하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장 안에는 연변특산품을 비롯하여 순대와 족발 등을 파는 곳까지 있어 발길이 닿는 곳마다 흥취가 난다. 전통적인 한국음식도 여기에서는 싼값에 사먹을 수 있다.

MEMO

룽징 - 龍井(용정)

면적 2,593km², 인구 27만 3000명(1998)이다.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중부에 위치하며, 주도(州都)인 옌지[延吉]에서 남서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상공업도시이다. 1913년에 옌변현이 설치되었다가 1983년에 룽징현으로 개칭하였고, 1988년 7월에 시(市)로 승격하였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3.13만세운동의 현장(용정중앙소학교)을 비롯하여 1880년경 한국인이 우물을 처음 발견하였다는 용정 기원(起源) 우물이 있다. 삼림 및 광산자원이 풍부하여 동.은.납.아연 등이 채굴된다. 공업으로는 기계.화학.제지.야금.피혁 등이 생산된다.

두만강의 지류인 해란강(海蘭江)이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며, 주변의 비옥한 농경지에서는 쌀.콩.수수.옥수수.아마(亞麻).사과.배 등 농산물을 산출한다. 창투철도[長圖鐵道:長春~圖們]가 시내로 지나며, 교육기관으로는 3개의 대학원과 146개의 소.중.고등학교가 있다.

문화유적으로는 비암산의 일송정(一松亭), 3.13반일역사의 묘지, 시인 운동주의 묘지, 한왕산고성(汗王山古城) 유적 등이 있다. 시내는 현대적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백두산 관광기지로도 큰 몫을 한다.

MEMO

10일에 29세의 젊은 나이에 옥사하였다. 유해는 용정의 동산교회 묘지에 묻혀 있고, 1968년 모교인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시비가 세워졌고, 1985년 월간 문학사에서 운동주 문학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연희전문 후배인 정병욱에 의해 발간되었다.

20세를 전후하여 10여년간 전개된 그의 시력여정은 청년기 고독감과 정신적 방황, 조국을 잃음으로써 삶의 현장을 박탈당한 정체성의 상실이 그 원천을 이룬다. 초기 시에서는 암울한 분위기와 더불어 동시에 깃들인 유년적 평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현실파 악 태도를 볼 수 있다.

운동주의 대표 작품으로는 <자화상>, <또다른 고향>, <별헤는 밤>, <쉽게 쓰여진 시> 등이 있다. 운동주의 시는 한마디로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도 자신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순순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내면의 의지를 노래했다.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역사적 국면의 경험으로 확장함으로써 한 시대의 삶과 의식을 노래하는 동시에 특정한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체험을 인간적 항구적 문제들을 관련지음으로써 보편적인 공감대에 도달하였다.

▶ 봉오동 적전지

1920년 6월 중국 지린성(吉林省) 허룽현(和龍縣) 봉오동에서 독립군이 일본군을 참패시킨 싸움. 1920년대에 들어서 만주 독립군부대의 국내 진입 무장활동이 활발해지자, 국경의 일본군 수비대가 수세에 몰렸다. 그 해 6월 4일 삼둔자(三屯子)싸움에서 일본군 남양수비대(南陽守備隊)가 패하자, 함북 나남에 주둔한 일본군 제19사단은 야스카와(安川二郎) 소좌가 인솔한 1개 대대로 월강추격대대(越江追擊大隊)를 편성하였다. 독립군을 추격하여 간도로 들어간 추격대대는, 6월 7일 안산(安山) 후방고지에서 독립군의 공격을 받아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나 허룽현 봉오동까지 독립군을 추격하였다. 당시 봉오동에는 독립군이 대한북로독군부(大韓北路督軍府)라는 연합군대를 편성, 주둔하고 있었다.

독립군은 일본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홍범도(洪範圖), 최진동(崔振東)의 연합부대를 새로 편성, 제1중대는 상촌 북서단에, 제2중대는 동쪽고지에, 제 3중대는 북쪽고지에, 제4중대는 남단 밀림 속에 매복하고, 연대장 홍범도는 직접 2개 중대를 인솔하고 남서단 중턱에 위치하여 일본군 주력부대가 포위망 속에 들어설 즈음에 일제히 사격을 단행하도록 하였다. 일본군은 독립군의 계획대로 봉오동 상촌의 독립군 700여 명이 잠복해 있는 포위망 가운데로 들어왔으며 홍범도의 명령에 따라 동.서.북 3면에서 일본군을 협공, 격파하였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157명의 전사자와 200여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독립군의 사기는 크게 진작되었다. 반면, 이 싸움의 참패에 충격을 받은 일본군은 관동군까지 동원하는 대대적인 독립군 토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운동주(尹東柱)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에 실었던 청춘을 다 살지 못하고 요절한 운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의 한 구절이다. 1917년 12월 30일 북간도 용정 명동촌 출신이다. 당시 명동촌은 두만강을 건너온 동포들의 일군 첫 동네다. 광활한 만주땅,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서 우리 민족이 겪은 쓰라린 수난과 우리 민중이 펼친 처절한 투쟁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곳으로,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교육장으로, 독립군 전사를 길러낸 양성장이며,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한 투쟁장이다.

명동 소학교를 졸업하고, 용정으로 이사온 후 은진중학.평양숭실중학 등을 거쳤다. 운동주.문익환.송몽규 등과 더불어 소학교 때부터 문예부 활동을 했으며, 특히 송몽규는 고종사촌으로 같은 해 한집에서 태어나, 소학교.중학교.연희전문학교까지 같은 학력을 걸어온 관계로 손바닥과 손등처럼 밀접한 사이였다. 둘은 얼굴이나 신장이 비슷했으나 성격은 대조적으로, 동주는 말이 적고 남 앞에 나서기를 꺼리는 내성적 성격이었다. 그러나 몽규는 말이 많고 행동의 폭이 큰 외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짧은 삶의 역정이나 문학적 길도 항상 동반자로서의 과정을 이끌어 갔다.

운동주의 연전 시절은 그의 시가 원숙한 사상과 깊이를 내적으로 형성할 수 있었다. 설립자의 청도교적인 정신, 교수들의 풍부한 학문적 양식과 민족의식, 교우관계, 독실한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서시'에 함축되었다. 또한 그는 방학을 맞아 고향의 집으로 농사 일에 직접 일손을 거들었고, 사소한 집안 일을 하면서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였다. 주위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평범한 사물들까지도 그의 내면 속으로 끌어 들여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려 하였고, 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향해 인간적 사랑을 실현하려 하였다. 일본에 건너가 동지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였으나, 1943년 여름 방학을 맞아 귀향 길에 오르던 중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경찰에 송몽규와 함께 검거되어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운동주는 1945년 2월 16일, 송몽규는 3월 그러나

일송정

- 용정에서 4km 떨어져 있는 비암산에 일송정 언덕이 있다

선 구 자

일송정 푸른솔은 늙어늙어 갔어도 한줄기 해란강은 전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진 꿈이 깊었나

용두레 우물가에 밤새 소리 들릴 때 뜻깊은 용문교에 달빛 고이 비친다
이역하늘 바라보며 활을 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진 꿈이 깊었나

용주사 저녁종이 비암산에 울릴 때 사나이 굽은 마음 깊어 새겨 두었네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진 꿈이 깊었나

윤해영 작사, 조두남 작곡의 이 '선구자'를 8.15전에는 '용정의 노래'라고 했었다. 망국의 슬픔, 암울한 앞날을 견디지 못해 우리 겨레는 이 노래를 부르며 많은 눈물을 흘렸고 한숨을 토했다. 그 '일송정'이라는 이름은 비암산 벼랑의 바위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푸름을 자랑하며 우뚝 곳이 있었는데, 그 모양이 정자 같았다는 데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놀이 철이 되면 이 소나무 아래 바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나무를 수호신처럼 여겨 치성을 드리기도 했으며 용정의 조석족 학생들은 비암산에 소풍을 나가 학교에서 배운 '학도가' 같은 노래를 힘차게 불렀다.

조선사람들이 일송정을 명물로 떠받들자 일본군은 비암산 근처에서 사격 연습을 하면서 일송정 소나무를 과녁으로 삼기도 하였고, 나무에 구멍을 내서 후춧가루를 가득 넣은 다음 큰 쇠뿔을 박아 나무를 죽였다고 한다.

근래에 이 곳의 소나무를 찾아보려는 남쪽 사람들의 발길이 찾아지자 서울의 '한겨레 사랑 나누기' 라는 모임에서 돈을 내어 용정시 당국이 백두산의 20년짜리 소나무를 옮겨 심었으며, 선구자 시비도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윤해영 작사가와 조두남 작곡가는 친일시와 친일 노래를 작곡에 했으며, 친일시비에 말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문(圖門)

연길에서 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1시간을 달려 도문에 이르면 두만강 건너편의 북한땅이 보인다. 두만강을 건너는 도문강대교의 국경경비초소를 보면 국경선에 와있다는 것이 실감난다. 유람선을 타고 도문강을 따라 가면 북한쪽 강가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과 부녀자들이 강가에서 빨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까운 곳은 서로 큰소리로 몇 마디 말도 건넬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연길에서 도문까지는 열차로 1시간 정도면 도착하며, 도문역에서 도문강대교는 도보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도문시는 작은 변경도시이므로 도문역 주변에 있는 도문賓館(빈관)에 숙박해야 한다. 여권 신분증확인등 복잡한 수속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여관에는 투숙이 불가능하다. 식사는 도문시 자유시장(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에는 한국식 전문 식당에서 삼계탕, 보신탕, 된장찌개나 불고기, 야채 등을 먹을 수 있다.

남평

중국 푸젠성 중부, 민장강 중류에 있는 신흥 상공업 도시 1957년 시로 승격되었다. 인구 약 46만 7천(1990). 민장강[툽강] 수운의 중심지로, 상류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모아서 푸저우[福州]로 흘러 보내는 뗏목으로 알려져 있고, 버섯·차의 집산지로 발달하였다. 또한 잉샤[鷹廈] 철도에서 갈라져 푸저우로 통하는 와이푸[外福] 철도가 1958년 개통한 이래, 성(省) 북쪽에서 수운으로 수송된 농·임산물을 철도로 옮겨 싣는 적환지(積換地)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아울러 제지·화학·피혁 공업도 발전했으며, 특히 신문용지의 생산량은 중국에서 손꼽힌다. 시가(市街)는 산을 등지고 하천에 면하고 있으며, 구릉이 많아 주택은 대부분 구릉 사면에 자리잡고 있다

▶북경 서커스

곡예와 다양한 기술이 집대성된 중국 고유의 전통 예능이다. 중국의 서커스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접시돌리기, 한발 자전거 타기, 공중 줄타기 등 전형적인 서커스의 종목은 물론 그림자 공연, 성대모사, 휘파람 묘기 등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춘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경 시내의 극장에서 매일 또는 요일별로 정기적인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격은 대체로 20元정도이고, 붐비므로 예매를 하거나 시작 시간보다 일찍 가는 것이 좋다.

▶경극

'경희(京戲)', '중국 오페라'라고도 하는 경극은 가극의 일종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예술 양식의 하나이다. 2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경극(京劇 : beijing opera)이라고 불리지만 원래 경극은 안휘, 호북 지역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삼국지와 서유기 등의 중국 고전을 소재로 짜여져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의 제목으로도 유명한 "패왕별희(霸王別姬)"가 유명하다. 경극은 대사보다는 배우의 노래와 연기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북경 시내에서는 장안대극장(長安大劇場)과 이원극장(梨園劇場) 등에서 경극을 관람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을 주대상으로 하는 극장들이 많이 생겨나서 영어와 보통화(북경어) 자막을 함께 볼 수 있는 극장들이 늘고 있다. 가격은 15元부터 200元까지 다양하다.

▶북경여행 길잡이

북경 5대 명소(고궁, 만리장성, 이화원, 천단, 명13릉)를 비롯한 명소 중의 명소만 대충 본다고 해도 최소한 사흘은 필요하다.

북경의 여름은 습도가 낮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데 비해서는 견딜 만하다. 그렇지만 겨울에 봄에 걸친 시기는 강우량이 적고 공기가 상당히 건조하여 여행자들이 상당히 견디기가 힘들다. 특히 봄에는 흙먼지(黃沙)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얼굴을 완전히 스카프로 칭칭 감고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북경여행에 제일 좋은 계절은 역시 가을이다. 황금빛 가을(金色的秋天)이라 불리는 가을은 맑고 시원하며 특히 향산(香山)의 단풍이 유명하다.

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독일에서 받았다는 자동차도 눈길을 끈다. 덕화원을 뒤로 하고 호수 쪽으로 나오면 대리석으로 만든 석주(石舟)라는 배가 여행객을 기다린다. 서태후는 이 석주를 타고 달맞이를 했으며, 보름달맞이 때는 수천의 구연들이 촛불을 들고 춤을 추며 서태후의 흥을 돋구었다고 한다.

낙수당에서 서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복도는 세계에서 가장 긴 723m나 되는데, 이 회랑의 안과 외관에는 당시 가장 그림을 잘 그린다는 화가들을 전국적으로 초빙하여 산수화 등 여러 종류의 그림을 벽면에 그리게 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져 온다.

▶북경의 대표요리

북경 요리는 중국 주요 요리 중 하나로, 한(漢), 만(滿), 몽(蒙), 회(回)족 등의 요리 특성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특히 산동요리의 특징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경 오리구이(카오야 : Beijing Duck)는 북경을 대표하는 요리로 북경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맛보아야 할 필수 코스이다. 잘 구어진 오리구이는 기름 칠이 되어 빛이 나며, 바삭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육질을 두루 갖추고 있다. 보통은 요리사가 손님 앞에서 구어진 오리를 직접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며, 얇게 부친 밀가루 전병과 파, 특별 소스가 함께 제공된다. 북경 오리구이를 먹는 방법은 먼저 밀가루 전병에 소스를 바르고, 그 위에 고기와 파를 넣은 다음 전병을 말아서 먹으면 된다.

▶쇼핑

백화점(百貨商店 : 바이후오상디엔)

대표적인 백화점으로는 우의상점(友誼商店 요우이상디엔)이 유명하다. 우의상점은 곳곳에 있으며, 그 외 유명 백화점으로는 연사우의상점(燕沙友誼商場 이엔샤요우이상청), 당대상점(當代商場 당다이이상창), 싸이터(塞特購物中心 싸이터꼬우중신) 등이 있다. 대형 백화점은 대개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하며, 이 곳들은 비싼 편이지만 품질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다.

이 외의 쇼핑장소로 중국의 재래 시장을 들 수 있다. 이 곳에서는 값싼 생활용품, 식료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의 실생활을 엿볼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이 될 것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쇼핑품목은 차, 술이 꼽힌다. 중국의 차는 잎차가 대부분으로 상등품부터 하등품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술 역시 알콜도수, 재료, 가격 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작은 선물용 기념품으로는 수공예품 인형, 실크 스카프, 부채, 반지, 팔찌 등의 악세사리 등이 인기가 높다.

발해를 꿈꾸며

- 서태지와 아이들

진정 나에겐 단 한 가지 소망하고 있는 게 있어
갈려진 땅의 친구들은 언제쯤 볼수가 있을까 망설일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

한민족인 형제인 우리가 서로를 겨누고 있고
우리가 만든 큰 욕심에 내가 먼저 죽는 걸
진정 너는 알고는 있나 전 인류가 살고 죽고
처절한 그 날을 잊었던 건 아니었겠지

우리 몸을 반을 가른 채 현실 없이 살아갈 건가
치유 할 수 없는 아픔에 절규하는 우릴 지켜줘
갈 수 없는 길에 뿌려진 천만인의 눈물이 있어
워~~ 나에겐 갈 수도 볼 수도 없는가
저 하늘로 자유롭게 저 새들과 함께 날고 싶어

시원스레 맘의 문을 열고 우리가 나갈 길을 찾아요
더 행복할 미래가 있어
우리에겐 우리들이 항상 바라는 것 서로가 웃고 돕고 사는 것
이젠 함께 하나를 보며 나가요

언젠가 나의 작은 나의 땅에 경계선이 사라지는 날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희망들을 가득 담겠지 난 지금 평화와 사랑을 바래요

젊은 우리 힘들이 모이면 세상을 흔들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은 것으로 큰 힘인데

백두산 (白頭山)

연길에서 자동차편으로 용정을 거쳐 5시간을 달리면 미인송 소나무들의 발그레한 줄기들이 미끈미끈하게 뻗어 있는 장관이 전개된다. 공기가 너무 맑아 선경에 온 것 같다.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보려면 새벽에 가는 것이 좋으므로 대개 이곳에 있는 二道白河公司(이도백하공사)에서 경영하는 호텔에서 1박을 해야 한다. 이튿날 새벽 5시쯤 일어나 중국쪽 백두산 정상인 천문봉으로 올라가는 중국군 소속 지프를 타면 편리하다. 안개속을 뚫고 30여분을 지그재그로 오르면 침엽수림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끼로 변한다. 화산암만이 널려 있는 곳에 차가 멈추면 거리서부터 50m는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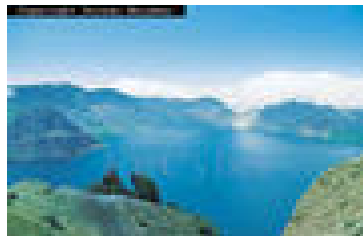
二道白河(이도백하)를 따라 배두산천지로 가다 보면 멀리 장백산온천이 있다. 이 온천은 온도가 83도나 되서 계란을 삶아 먹을 수 있을 정도다 이곳에서 온천욕을 할 수 있는데, 피부병에 아주 효험이 좋다고 한다.

◆ 찾아가는 방법

연길에서 용정-송화강-二道白河 (이도백하)-백두산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백두산으로 가는 최단거리 노선이다. 교통수단은 택시, 중형버스, 대형버스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있다. 백두산 등반은 7, 8월이 적기이나 7월말부터 8월 중순경이 가장 무난하다. 백두산에는 9월초에 눈이 온다.

◆ 天地(천지)

천지로 가는 길은 天文峰 (천문봉) 가는 길과는 별도로 二道白河公司 (이도백하공사)에서 二道白河(이도백하)가 흐르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야 한다. 한시간 정도 달리면 백두산온천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하차하여 장백폭포를 보면서 산허리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야 한다. 지척으로 폭포의 물보라를 보며 천지 입구로 접어들면 신비스런 천지가 전개된다.



대의 아치벽에는 4대 천왕과 무늬 부조가 조각 되어 있는 데 정교하고 생동하여 석조 중의 정품으로 꼽히고 있다. 팔달령 장성의 성벽은 남과 북으로 각각 산세를 따라 뻗어 올라 갔는데 남북 두 봉우리에 각각 4개의 망루가 우뚝 솟아 있고 기세 웅장하고 경치 화려하다. 황화진은 옛날 군사 요충지로 모전옥을 비롯한 90 킬로미터 장성을 관할하였는데 명나라때 황룡을 직접 호위하던 <1 급 장성>으로 <수도 북문>으로 불리웠다.

▶ 이 화원



북경시의 서북쪽 16km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 청대에 여름별장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총면적은 267ha으로, 인공으로 만든 곤명호(昆明湖)와 만수산(萬壽山)의 규모에 놀랄만 하다. 곤명호는 이화원의 총면적의 3/4를 차지할 만큼 큰 호수이다. 만수산은 이 호수에서 파낸 흙을 쌓아 만든 인공산이다.

이화원은 금나라 1153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명대에 몇개의 건물이 들어섰고, 청의 건륭제(乾隆帝)가 1750년에 곤명호를 확대하고 그 흙으로 만수산을 만들었다. 북경 자체가 평야지대로 자리잡고 있어 거대한 산을 만들고 인

공호수와 수로를 북경의 곳곳에 만

들었다. 1860년 제2차 아편전쟁 당시 이화원은 영, 불연합군의 북경 침략시 파괴되었는데, 서태후가 1888년 해군의 군함건조비를 유용하여 이화원을 재건하였다.

이화원은 중국의 전통건축의 하나로도 유명하다. 이곳의 아름다리 나무들과 모든 것이 인조로 축조되어 있어 인간의 위력을 실감나게 한다. 정문인 동궁문을 지나 인수문을 들어서면 인수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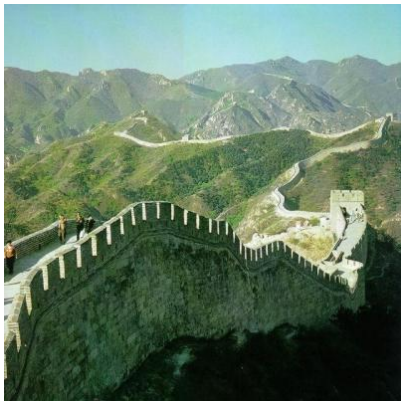
인수전은 서태후가 정무를 보던 곳으로, 그녀가 생전에 사용하던 각종 집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인수전 북쪽에는 덕화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3층 건물로 서태후의 전용 극장으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은 서태후의 60번째 생일을 맞아 70만냥의 은을 들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서태후는 이 극장에서 연극을 보거나, 자신이 몸소 경극에 출연하기도 했다고 한다. 덕화원 뒤에는 이락전이 있다. 이락전에는 서태후가 외국에서 선물로 받았다는 각종

서태후는 서안에서 북경으로 돌아온 후에 다시 거대한 자금을 들여 복구에 나섰다. 이 화원은 무엇보다도 규모가 실로 엄청나며 총면적이 294㎡이다. 본래 평지였던 곳을 파내 만든 곤명호(昆明湖)와 호수에서 파낸 흙으로 쌓은 만수산(萬壽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수면이 전체의 3/4을 차지한다. 서태후가 이화원에 이처럼 각별한 관심을 둔 목적은 피서와 요양이었으며, 1903년부터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곳에서 보냈다. 서태후는 이 곳에서 신하들과 국정을 논할 일이 많이 생기자 정원 앞 부분에 궁전과 생활거주지구를 짓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화원은 궁전과 정원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황족 정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화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곤명호는 인공호수이지만, 인공호수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규모가 실로 엄청나다.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타고, 여름엔 보트와 유람선을 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특히 곤명호 동쪽 기슭에 있는 17 공교의 난간에 새겨져 있는 544마리의 사자도 볼 만하다. 또한 곤명호를 안고 있는 만수산도 인공산으로 화려한 누각이 있으며 이화원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서 역시 인기가 좋다.

▶ 만리장성



장성은 중국 고대의 중요한 군사 시설로 기원전 7세기에 건조되기 시작하였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 북방 흉노족의 남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원전 214년부터 각 제후국이 건조한 장성을 수축, 중축, 연결하기 시작, 10년을 거쳐 방대한 장성이 구축되었다. 그 후 역대 왕조들이 방어 수요에 따라 개수하였다. 명나라때에 와서 선후로 약 200여년간 장성을 18차례 수축, 그리하여 장성이 서쪽의 감숙성 가옥관에서 동쪽의 하북성 산해관까지 못산을 넘고 초지를 건너고 사막을 경유

하여 6개 성, 1개 시를 가로 지난 총 길이가 6,7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현재의 장성이 되게 하였다. 장성은 대부분 오늘까지 기본적으로 완전하게 보전되어 있다. 북경 팔달령 구간의 장성은 명나라 장성의 대표이다.

성벽의 높이는 8.5미터, 윗 부분의 너비는 5.7미터이고 성가퀴의 높이는 1미터이다. 장성은 세계일대의 가관으로서 구불구불 끝없이 뻗어나가는 기세 웅장하다. 운대는 거용관의 주요 건물의 하나로서 원래는 사탑 기반이며 그 아래는 북상 요로이다. 운

백두산 가는 길



북경

▶ 자금성



북경시의 중심에 위치한 명.청대의 황궁으로, 천안문 정문으로 들어가 울창한 가로수 길을 따라 단문과 오문을 지나 보이는 곳으로 중국에서는 고궁(故宮)이라는 이름이 더 친근하게 이용되고 있다. '자금성'이라는 이름은 "천자의 궁전은 천제가 사는 '자궁(紫宮)과 같은 금지 구역(禁地)과 같다"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전체

면적은 72만㎡이며, 총 9999개의 방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궁전 건축물이다.

1406~1420년에 건조된 이래로 560년 동안 15명의 명나라 황제와 9명의 청나라 황제가 일생을 보냈고, 105만점의 희귀하고 진귀한 문물이 전시·소장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자금성은 외조와 내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문과 태화문을 지나면 흔히 '3전'이라 부르는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이 나타난다. 3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금성의 내정에 이르게 되고 이곳에는 건천궁, 교태전, 곤녕궁 등이 있으며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동육궁과 서육궁이 자리잡고 있다.

방어의 목적으로 궁전 밖에는 10m의 담이 있는데, 사방에는 성루가 있고 밖에는 호성강(護城河)이 흐른다. 80년대의 유명한 영화인 "마지막 황제"의 배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꼼꼼하게 보려면 하루가 꼬박 걸리고, 그냥 가로질러 가는데도 2시간 정도나 걸린다.

또 얼마 전에는 영화촬영의 배경지가 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공연도 열려 문화유적지나 관광지로서 뿐만 아니라 중국시민의 휴식장소, 문화장소로서도 이용되고 있다.

1987년에 이르러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천안문 광장 (天安門 廣場, 티엔안먼광창)

중국하면 떠올리게 되는 역사의 무대로, 북경시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총면적은 40여만 평방미터로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광장이다.



광장 중심에는 인민 영웅 기념비가 우뚝 서 있다. 북쪽으로 천안문, 남쪽에는 전문(前門), 동쪽에는 중국역사박물관과 중국혁명박물관, 서쪽에는 인민대회당 등 사방이 역사적인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연일 전세계와 중국 전역에서 몰려온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천안문 광장과 천안문 앞대로인 장안대가(長安大假)가 생긴 것은 1959년으로 중국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최대의 광장으로 정비되었다.

천안문 광장은 1976년 4월 5일 주은래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문화 대혁명과 1989년 6월 4일 전차에 대항한 민주화 사태의 천안문사태 등 중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벌어졌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 천안문 (天安門, 티엔안먼)



천안문 광장과 함께 중국 근현대사의 현장이 되어온 곳으로 고궁의 남문(南門)에 해당한다. 원래는 명, 청조의 왕궁정문으로서 황제가 조서를 내리던 곳이었다.

성문 아래에는 금수교가 있다. 다리북측 좌우는 붉은색 스탠드이고 다리남측 좌우에는 한 쌍의 화표와 한 쌍의 돌사자가 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선언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져 중국인들에게는 의미가

깊은 곳이다.

특히 북경과 중국을 떠올리면 이곳의 사진들이 등장하는데 관광객들의 방문이 가장 많은 곳이다. 천안문 성루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관광객에게 개방되었다.

이화원

1998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된 중국에서 최대 규모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완전한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황족 정원이다. 특히 서태후의 여름 별장으로 유명하다. 북경 서쪽 외곽인 해정구(海澱區 하이디엔취)에 위치해 있으며, 북경 시내에서는 15km 떨어져 있다.

이화원의 전신은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원명원을 불태웠을 때 함께 파괴되었다가 광서 14년(1888)에 서태후는 해군 군비를 이용해서 다시 재건했으며 이 때 이름을 현재의 "이화원"으로 바꿨다. 1900년, 이화원은 또다시 팔국 연합군의 선공을 당했다.